

**쌀농사 소득 꽃재배의 6.2%
카네이션 1천192만원 최고**

같은 면적의 농지에 카네이션이나 백합 등 화훼류를 심으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느타리버섯, 시설채소류 등도 소득이 짝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식량작물인 쌀, 보리, 콩, 옥수수등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이들 작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5일 농촌진흥청이 정부가 권장한 영농기술을 택한 전국 2,517개 지역, 7,551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따르면 단보(10a)당 조수입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 경영비를 뺀 소득액은 화훼류가 7백6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설채소 2백82만8천원, 과수 1백53만1천원, 노지채소 89만4천원, 축산물 60만6천원 등이었다.

그러나 쌀은 43만8천원으로 화훼류의 6.2%, 시설채소의 15.5%, 과수의 28.6%, 노지채소의 49.0%, 축산물의 72.3%에 그쳤으며 옥수수, 콩, 참깨 등은 쌀보다 소득액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표준소득 총괄표(기준 10a)

품 목	소득액 (천원)	소득률 (%)
카네이션	11,924	55.3
백합	8,734	51.5
느타리버섯	8,706	63.6
장미	8,395	57.3
시설오이(축성)	6,549	67.1
시설고추	5,038	68.9
인삼(4년근)	4,738	68.2
딸기(축성)	3,746	62.5
포도	2,373	78.3
수박(반축성)	2,297	69.9
양상추	1,819	70.1
생강	1,722	68.9
배	1,998	68.9
사과	1,611	66.0
마늘	1,169	73.8
고추	1,184	78.4
대파	1,176	76.0
배추(하우스)	1,001	60.7
양파	771	67.2
쌀	438	70.6
참깨	320	78.1
콩	204	69.2
옥수수	196	60.6
겉보리	156	62.8

**'長城사과' 개발 특허추진
당도 높고 수확도 빨라**

전남 장성군 상계면 상도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이 품질이 아주 좋은 사과 품종을 개발, 장성군의 명품 '장성사과'로 시판될 전망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86년 후지 품종에서 변이종을 발견해 접목시켜 증식시킨 金在永씨(37). 이 변이종은 당도가 14.8로 후

지보다 0.2도 높고 개당 무게도 4백g으로 후지보다 크고 색깔이 좋으며 숙기가 9월22일로 후지보다 33일 빨라 추석 선물용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金씨는 이 사과 나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묘목 생산에 나서 현재까지 5천여그루의 묘목을 생산해냈다.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 기술진도 이 변이종에 대해 장기간 확인과정을 거쳐 숙기, 당도, 중량 등에서 후지 품종보다 뛰어나 시판될 경우 추석출하 사과중 최우수 유망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변이종을 품종등록과 함께 식물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종의 생리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력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수형 개발을 통해 명품 '장성사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토마토 결가지로 묘목생산
종자값 크게 절약 가능**

토마토 결가지를 이용한 묘목생산이 가능해져 제주도내 농가들이 종자값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농촌지도소는 지나달 중순 지도소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인 양액재배 토마토에서 결가지를 삼목하는 방법으로 묘목을 생산하는데 성



참깨 예취·결속기:농업기계화연구소가 최근 개발한 이 기계는 바인더를 이용해 참깨를 베고 묶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존의 인력수확보다 10a당 20배의 노력절감과 90%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 175만원 정도의 가격에 내년부터 농기계업체를 통해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공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지도소는 꼬꼬와 도태랑 등 2개 품종 토마토의 결가지 2천개를 잘라내 뿌리성장을 돕는 발근촉진제를 뿌린뒤 하우스안 시범삼목상에 심었는데 이 가운데 95% 이상이 5일이 지나면서부터 뿌리를 내려 묘목으로 사용이 가능할만큼 자랐다.

이같은 묘목생산 방식은 별다른 기술을 필요치않아 앞으로 대량의 묘목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일본에서 들여오던 토마토 종자를 대체할 수 있게돼 도내에서만도 연간 1억2천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농촌지도소는 이 삼목묘를 직영하우스와 농가에 실증재

배한뒤 도내 전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왕담배나방 유충 크게 확산 濟州전역 감귤원에 큰 피해

수확기를 앞둔 제주도내 감귤원에 왕담배나방 유충이 크게 번져 피해를 주고 있다.

9월24일 제주도농진원에 따르면 지난주만해도 왕담배나방 유충이 북제주군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 2백여ha에 발생, 피해를 줬으나 금주들어 유충이 전도의 감귤원으로 번지면서 피해면적도 현재 1천73ha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

도착해충인 왕담배나방 유충은 날카로운 입으로 수확기를 앞둔

감귤열매를 뚫고 들어가 즙액을 빨아먹어 열매가 떨어지게 하거나 상처를 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특히 왕담배나방 유충은 울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착과 상태가 좋지않은 북제주군 관내 감귤원에 많이 발생,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왕담배나방 유충을 구제하는 별도의 약제가 없기 때문에 담배나방 약제를 살포, 구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올해 왕담배나방 유충 발생이 많은 것은 강우일이 적고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장채소 등에 예보 발표 파밤나방, 노균병 방제당부

금년도 마지막 예찰정보가 9월 23일 보리 감부기병 및 줄무늬병과 김장채소 등의 파밤나방, 배추좀나방 등을 대상으로 발표됐다. 농진청은 보리와 맥주보리의 감부기병, 줄무늬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카보람분제와 캡탄수화제 등 종자소독약을 미리 준비했다가 파종 전후에 종자에 고루 묻혀 소독하도록 했다. 또 여름철 고온의 영향으로 무·배추·파 등 김장채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큰 파밤나방과 배추좀나방, 배추노균병 등의 병해충 예방을 위해 어린 애벌레 발생시기에 적용살충제를 뿌려 방제토록 했다. **농약정보**